

강하늘 “천우희 사랑스러워… ‘접속’ 같은 영화 뒀으면”

‘비와 당신의 이야기’…3년만 스크린 복귀

“대본상 영호의 빈칸, 강하늘로 채웠다”

배우 강하늘이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의욕 없이 삼수 생활을 하다 오랫동안 간직한 어릴 적 친구와 손편지로 소통하며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아련한 청춘을 그려냈다.

22일 화상으로 만난 강하늘은 “영화 속 인물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캐릭터에 나의 모습을 많이 담아냈다”고 밝혔다.

그가 주연한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유연히 전달된 편지 한 통으로 서로의 삶에 위로가 되어준 영화와 소희의 이야기를 그린다.

강하늘이 연기한 영호는 꿈도 목표도 없는 삼수생이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불안하고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생기를 잃어가던 영호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맞는다. 희미했던 그의 하루는 어느덧 편지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빛나기 시작하고, 오가는 편지와 함께 위안과 용기를 주고받는다.

강하늘은 “영호 캐릭터에 많은 부분이 비어 있었다. 편한 방식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좋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른 작품들은 캐릭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보일지 노력했다면 영호는 반대로 진짜 내가 하는 반응과 호흡을 넣어보려고 노력했다”며 “대본상 영호의 빈칸을 강하늘로 채웠다”고 설명했다.

캐릭터와 닮은 점에 대해서는 “삼수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못했다는 것은 같다”고 너스레를 떨며 “영호가 가족 공방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나름의 고집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고 했다.

반면 “영호와 같이 연애하기 전이나 썸(호감) 때 애매모호하지는 않다”며 “이성 간의 관계는 확실한 편이다”고 웃었다.

시나리오 읽고 눈시를 뿔어져…추억 떠오르

더라

영화는 20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잊고 있던 추억을 소환하며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한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주인공들의 손편지에 더해 옛날 휴대폰과 한채방, LP 등의 소품들이 등장한다.

강하늘은 “시나리오를 보고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옛날의 과거가 떠오르고 상상하다 보니 쫓겨지더라”며 “텍스트에서도 그러한 감성이 충분히 느껴졌다”고 떠올렸다.

감성적인 영화에 같았을 것이라는 그는 “이런 분위기와 톤을 가진 영화를 오랜만에 대본으로 읽었다”며 “대본을 읽으면서 ‘연애편지를 처음 쓸 때 어땠지?’ 설렘과 기대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흡입력이 있었다. 조금씩 감정이 쌓이는데 나에게 감동을 주는 대본이었다”고 떠올렸다.

영호는 연애에 있어 순박하고 꾸밈없는 캐릭터다. 영화 ‘좋아해줘’와 드라마 ‘동백꽃’ 속 캐릭터 이미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강하늘은 캐릭터의 반복에 대한 걱정은 없느냐고 묻자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도 “연출하시는 감독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다. (대중들에게) 여러 이미지를 보여드려야겠다는 머리는 없다. 걱정하지 않고 작품에 충실할 뿐이다”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작품 촬영이 색다른 경험이었다고도 밝혔다. 손편지를 주고받는 설정상 대부분의 장면을 편지를 읽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된 내레이션을 듣고 연기했다.

강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천우희씨를) 상상하면서 연기하게 되니까 표현하

는데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다”며 “오히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유롭게 연기한 것 같다. 표현의 한계치가 없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극 중 등장하는 편지도 직접 썼다. 실제 편지를 읽을 때도 쓴 사람이 어떻게 읽었는지 상상하게 되는데, 손글씨를 쓰다 보니 연기의 톤이 잡힌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천우희, 무게감 있는 배우…‘나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

호흡을 맞춘 천우희에 대해서는 “전작인 한공주, 곡성, 써니 등을 봤는데 우희 누나가 화면에 나오면 무게감이 있고 힘이 더 커지는 느낌이 있다”며 “나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보니 밝고 사랑스러운 분이시더라”고 신뢰를 나타냈다.

드라마 ‘미생’에서 만난 강소라는 이번 영화에 특별출연했다. 7년 만에 재회한 강하늘은 “사람에 대한 태도와 책임감, 재능 등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다”며 “나이를 먹어가면서 현장에서 자유로움, 여유로움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생 때는 둘 다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현장을 즐기지 못했다. 이번에는 서로 편하게 촬영했다”고 전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다림’이다. 이야기도 잔잔하고, 속도는 느리지만 관객들에게 쉽표, 여백을 주는 감성 영화를 자부했다.

“많은 영화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담기 위해 확실한 기승전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는 ‘접속’이나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작품이 되고 싶어요. 한번 봤을 때도 마음이 가지만 다시 돌려봤을 때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요. 개인적으로 잔잔한 감성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시 봐도 다른 점들이 눈에 보이는 여백이 있는 영화가 저희 영화예요.”



JTBC ‘와썹 K-할매’ 장윤정·장도연 MC

JTBC 새 예능프로그램 ‘와썹 K-할매’가 다음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22일 JTBC에 따르면 새 예능 ‘와썹 K-할매’는 오는 5월4일 오후 9시에 첫 방송 된다.

‘와썹 K-할매’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과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할머니의 기막힌 동거가 펼쳐지는 프로그램으로, 예능관 ‘미나리’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살아온 환경도, 사고하는 언어도 전혀 다른 외국인인과 할머니의 만남은 지금껏 보지 못한 낯것의 재미를 예고, 모든 일상이 코미디가 되는 한 편의 시골 리얼 시트콤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라는 지혜의 창고에서 삶의 보물들을 발견하고 말하지 않

아도 전해지는 한국의 정(情)을 통해 감동까지 선사할 전망이다.

이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관찰하며 감칠맛을 더할 MC에는 가수 장윤정과 코미디언 장도연이 나선다. 전국 팔도를 점수한 입담 여왕 장윤정은 할머니들의 숨은 심리까지 해설해주는 안방마님으로 활약하고, 토의 점수 905점에 빛나는 장도연은 외국인 손주들의 비공식 통역 담당을 맡아 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인생 최초 한국 시골 생활에서의 시련을 만난 외국인인과 손주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정을 가진 K-할매가 선보일 유쾌한 힐링과 ‘장자매’로 변신해 찰진 티카타카를 보여줄 두 MC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선화, ‘인권 변호사’로 변신…‘언더커버’

그룹 ‘시크릿’ 출신 배우 한선화가 ‘인권 변호사’로 돌아온다.

23일 오후 11시 첫 방송을 앞둔 JTBC 새 금토드라마 ‘언더커버’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온 남자가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한선화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살아온 인

권 변호사 최연수(김현주) 역의 청춘 시절을 연기한다.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는 20대의 열정을 지닌 최연수로 변신한다.

제작진은 “현재의 최연수 역을 맡은 김현주와 외모부터 밀도 높은 감정선까지 싱크로율로 안정적인 연기를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투비 출신 정일훈, 대마초 혐의 첫 재판…“진심 반성”

상습적으로 대마초 흡입한 혐의 정일훈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씨가 첫 재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환)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 8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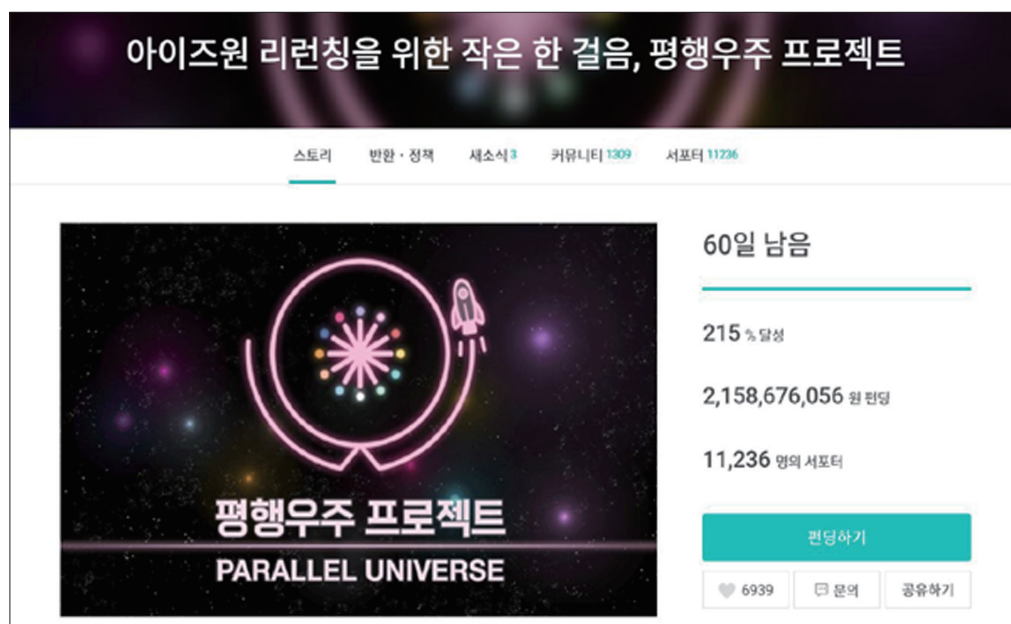
그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했다.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정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이에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비투비 멤버들과 함께 데뷔해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진 뒤 비투비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책임 통감한다”며 정씨를 팀에서 탈퇴시켰다.



‘아이즈원 리론칭’ 펀딩, 오픈 첫날 20억원…‘팬슈머’ 위력

‘평행우주 프로젝트 위원회’ 설립, 리론칭 초기 비용 모으기 위해 진행



그룹 ‘아이즈원’의 활동 재개를 위한 리론칭 프로젝트의 펀딩 금액이 하루 만에 20억원을 넘어섰다.

22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따르면, 아이즈원의 리론칭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

‘평행우주 프로젝트’는 오픈 20분 만에 10억원을 모은 데 이어 첫 날 20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펀딩은 이달 말 활동 종료로 앞둔 아이즈원의 리론칭을 위한 모금 프로젝트다. 아이즈원의 팬 연합 위즈원이 ‘평행우주 프

젝트 위원회’를 설립, 리론칭 시 필요한 초기 비용을 모으기 위해 진행됐다.

각 멤버의 소속사들이 아이즈원의 활동 지속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팬덤을 기반으로 이미 충성도 높은 고액군을 확보한 이번 펀딩은 메이커가 자체 진행한 펀딩 수요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약 1만여명의 지지를 얻었다. 실제 펀딩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평행우주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팬들의 열의를 담은 이번 프로젝트는 펀딩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와디즈를 통해 진행하게 됐다”면서 “팬들의 마음이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팬들에게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사례를 아이돌 팬문화의 대표적인 ‘팬슈머(fansumer) 사례’로 보고 있다. 상품이나 브랜드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용어다. 자신이 키워낸 상품이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다.

이번 펀딩은 오는 6월21일까지 총 두 달 간 와디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